



합동 토론 31일 오후 광주 서구 KBS광주방송총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 합동토론회 시착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 3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조영권 기자

정책 실종...또 자질 검증 공방만

6·3 지방선거 D-63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4월3-5일)을 사흘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각 후보들은 정책 경쟁보다 자질 검증과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며 유권자들의 실망을 키웠다.

기호 1번 신정훈 국회의원, 기호 2번 민형배 국회의원, 기호 3번 주철현 국회의원, 기호 5번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31일 KBS광주방송총국 스튜디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해 공방을 벌였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정책 검증을 넘어 후보 간 책임론과 과거 행보를 겨냥한 공세가 이어지며 네거티브 양상이 반복됐다.

신정훈 후보는 김영록 후보를 향해 "도민들이 살기 어려워 통합에 이르게 된 만큼 민생 대책이 중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설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현재 신안, 곡성 등에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6개, 12개 시·군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후보는 "소멸 고위험 지역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약 5천억원 정도 들고 시·군과 나눠 부담하면 2천5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마지막 토론

신정훈·민형배·김영록 3강 기싸움 치열
농어촌기본소득·광역철도 등 '갑론을박'
辛·閱, 실적·과거발언 등 쏠 '집중포화'
李대통령만 앞세운 마무리발언도 빈축

신 후보는 민형배 후보를 향해 "20조원 중 16조원을 기업 유치에 쓰겠다는 것은 민생 위기에 비해 인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는 "20조원은 사회안전망에 투입하고 경제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을 둘러싼 2차 논쟁도 벌어졌다. 김 후보는 민 후보를 향해 "광역철도는 수요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노안을 통과하는 노선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세를 가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재명 국정과제로 제시된 노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친명(친이재명)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국정과제와는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후보는 "수요가 충분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 역

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현재 재산정이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불을 놓았다.

주철현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주청사 위치를 다시 꺼내 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 후보가 3개 청사를 운영하되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자, 주 후보는 "법적으로 주청사는 한 곳이어야 한다.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주청사를 정해 당당히 선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후보는 신 후보를 향해 도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문제를 거론하며 보궐선거 반대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신 후보는 "잔여 임기가 많지 않아 판단이 부족했다. 지방자치 잠정권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민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친명' 논쟁과 윤석열 정부 시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 후보는 "자꾸 저를 이재명 대통령과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라. 통합을 반대했다고 영혼한 소리하는 데 가장 먼저 말했다"며 "친명인 게 자랑스럽고 호남 정치인 중 (이 대통령을) 가장 먼저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개막식에서 '전남 미래 100년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양시원 기자

알림

새로운 신문 콘텐츠 '프리미엄 웹툰 연재'

광주매일신문이 지역 독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프리미엄 웹툰 연재를 시작합니다.

4월부터 매주 금요일자 광주매일신문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선보이는 이번 웹툰은 스토리와 메시지, 완성도를 모두 갖춘 차별화된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보는 재미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역 창작자들이 참여하는 웹툰 연재는 다양한 장르와 감각적인 연출, 몰입감 높은 스토리 전개를 통해 독자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과 기대감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과 시대를 반영한 공감형 콘텐츠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담아낼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신진 작가 및 기성 작



매주 금요일자 광주매일신문 지면과 온라인에 웹툰을 연재할 정서현·국병석·송재영 작가(왼쪽부터).

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아내고 창작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매일신문의 프리미엄 웹툰 연재에 애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안내

- 연재 시작 : 2026년 4월 3일(금)
- 연재 일정 : 매주 금요일
- 연재 채널 : 광주매일신문 지면 및 온라인 플랫폼
- 내 용 : 스토리 중심의 프리미엄 웹툰 콘텐츠(다양한 장르)

무안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초읽기

오는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군민설명회

국방부가 1일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무안군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2일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전망이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4월 1일 오후 2시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국방부 주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전 단계에서 마련됐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방안 ▲정부 차원 지원 사업 등 설명자료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무안군민 설명회 이후 이르면 2일, 늦어도 이번 주 중 무안을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다.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 등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명회는 무안군민들에게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설명회 이후에도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oday

- 세월호 선체 고하도 매립지에 영구 보존 6면
- 올해 수능 11월 19일... "안정적 난이도" 7면
- '다시 뜨겁게' V13 염원 홈 개막이벤트 16면

4월 1일 BEST OPEN

광주공항 맞은편에 '베스트장례문화원'이 첫 문을 엽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위로, 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장례 문화가 시작됩니다.

'베스트(BEST)'는 단순한 최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인이 걸어온 삶의 마지막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존중'이며, 남겨진 가족의 슬픔을 세심하게 보듬는 '정성'입니다. 고인의 삶을 기리고 추억하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서, 가장 편안한 시설과 마음을 다하는 서비스로 광주의 새로운 장례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베스트장례문화원
BEST FUNERAL CULTURAL CENTER

'베스트로 모시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우산동) 광주공항 맞은편
대표전화: 062-454-1000

찾아오시는 길: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우산동) 광주공항 맞은편